

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12.5)

< 국외 경제동향 >

○ (미국) 10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월가 2015년 6월 금리 인상 예상

- 10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 지표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체감지표들의 개선 추이와 고용 및 선행지수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은 미국 내 실물경기의 우호적인 여건을 시사

· 산업생산은 10월중 전월비 0.1% 감소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소매판매는 고용 개선과 휘발유가 하락 등의 영향에 힘입어 전월비 0.3%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

·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ISM 제조업지수가 전달과 달리 59로 상승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낙폭을 만회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의 반등에 힘입어 2007년 10월(95.2) 이후 최고치인 94.5까지 상승

※ ISM 제조업지수 :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미국 안의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

비스업)지수 두 가지로 발표됨, 두 지수 모두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예고함

· 실업률은 10월 5.8%로 추가 하락하면서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경기선행지수도 0.9%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

· 지난 10월 양적완화(QE3)를 종료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2015년 6월중 금리 인상 예상

○ (일본) 9월 실물지표 동반 증가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지속

- 지난 9월중 생산과 수주가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2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실물지표들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 그러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0.4%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안감이 재차 확산되면서 내년도 소비세 인상(10월) 연기에 대한 논란 가중

○ (중국) 10월 내·외수 지표 약세, 인민은행 2년여 만에 금리 인하

- 10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 지표들이 전달보다 둔화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율도 전달보다 낮아지면서 내·외수 지표들이 3분기 초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인민은행은 2년여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

- (유로권) 9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3분기 역내 성장률 전기비 0.2%
 - 지난 9월 역내 생산이 전월비 0.6% 증가 하면서 반등세를 보인 반면, 소비는 1.3% 감소하면서 재차 반락하는 등 실물 지표들의 혼조세가 지속. 3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2%로서 올 들어 제로 수준의 미약한 성장세 지속

- (국제금융·유가) 엔/달러 118엔대 진입 & 3대 유종가 70달러대
 - 10월말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융완화 발표에 이어 일본과 유로권의 3분기 저조한 성장률로 인해 통화당국의 확장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강세 지속. 엔/달러는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인 118엔대 진입
 - 산유국들의 감산 불확실성과 사우디의 9월 원유수출 증대, 미 EIA와 IEA의 유가 하향 전망, 미 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유가 약세 지속. 브렌트유를 비롯한 3대 유종 가격이 201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모두 70달러대

< 국내 경제동향 >

- 실물경제
 - 실물경기 : 9월 전산업 생산지수 2개월 연속 감소, 전월대비 0.9% 감소,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소비자물가 : 10월중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실업률 : 9월 계절조정 실업률 3.5%

-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10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 금리 및 환율 : 11월 중순(11.17~11.21)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 생산 : 전년동월비 2.0% 증가, 전월대비는 보합
 - 9월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월비 2.8%, 전월대비 0.1% 각각 증가

- 고용
 - 9월 취업자 수 : 전년동월대비 45.1만명 (1.8%)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516억 달러, 수입은 3.0% 감소한 44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월간 사상최고치인 74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와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로 월간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은 감소
 - 수입은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재의 수입이 감소한데다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액의 감소로 원자재 수입도 줄어들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자를 달성
 - ※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KIET 경제산업 동향』 (12.5) 자료 인용

□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14.12)

○ 최근 우리 경제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이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전산업 생산이 3개월만에 증가하며 8~9월의 부진에서 다소 개선

- 10월중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청년층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며 4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지속(전년동월비 45.1→40.6만명)
- 11월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폭 둔화(전년동월비 1.2→1.0%)
- 10월중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 통신 등이 줄어들어 감소(전월비 0.0→△1.6%)
- 10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0.2→0.8%). 소매판매는 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3.2→△0.4%)
- 10월중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13.3→△4.6%)하였으나 건설투자는 건축공사가 증가하며 소폭 증가(△5.8→0.2%)
- 10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0.3p),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0.3p)
- 11월중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유가 하락

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소폭감소(전년동월비 2.3→△1.9%)하였으나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73.8→56.1억불)

- 11월중 국내금융시장은 금리가 하락하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환율은 원/달러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원/엔은 하락
- 11월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전월비 0.2→0.2%) 및 전세가격(0.3→0.3%) 상승세 지속

○ 미국 양적완화 종료 · 엔화 약세 심화 ·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
 - 경기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 체질 개선
-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14.12) 보도자료인용

□ OECD 경제전망 발표(11.25)

OECD는 세계경제가 '14년 3.3%, '15년 3.7%로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14년 3.5%, '15년 3.8%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

○ 세계 경제 전망

- (전망) 세계경제는 '14년 3.3%, '15년 3.7%로 성장할 전망
- 세계경제는 수용적 통화정책, 금융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전망
 - * 다만, 성장세가 여전히 위기 이전에 못 미칠 것이며, 국가별 성장세도 차별화 될 전망
-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더 큰 상황
 - * 유로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
- (주요국) 미국의 성장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과 유로존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증대, 재정긴축 기조 약화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
-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개선,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
-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기대감 하락, 고실업, 저물가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 중국은 성장률이 점차 완만해지며 '16년에 7%를 하회할 전망

○ 한국 경제 전망

- (전망) 한국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 '15~'16년 4% 내외 성장률 달성 전망
-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 증가
 - *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상회,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경제 내에 상당한 유휴경제력 존재
-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을 병행 추진
 - *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여, '14년 기준금리를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인하(△50bp)
 - * 정부지출이 증가하며 통합재정수지는 '18년까지 GDP대비 1~2%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하회할 전망
 - * 규제개선, 70% 고용 로드맵,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아울러 추진
- '15~'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
 - * 내수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16년에 GDP대비 4.2% 수준으로 감소,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
 -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전망
 - (정책권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
 -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
- ※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 발표』 (11.25) 보도자료 인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 정책 방향(12.22)

〈2014년 경제운용 평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구조개혁의 시발점 마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일)을 마련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 추진
-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회복과 경제혁신 모멘텀이 약화
 - ‘13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세월호 충격(‘14. 4)등으로 크게 부진
- 새 경제팀의 과감한 기조 전환으로 침체된 분위기 일신
 - 새 경제팀 출범(7.16)후 축소균형을 방지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 경제혁신을 재가동
 - 경제활력 제고, 소득 선순환, 경제혁신 재가동
-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살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모멘텀 마련
 -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성장률이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

〈향후 경제여건〉

-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교역은 완만하게 개선, 회복속도



고객상담전화
080-220-1212
080-210-1717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남해화학주식회사

는 국가별로 상이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 유가는 하향 안정세

○ 국내경제 여건

- (경기)세계경제 회복흐름,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
- (내수)정책효과 등으로 완만한 개선 전망
- (수출입)수출은 증가, 경상수지 흑자폭은 둔화
- (고용)양호한 증가세 지속, 임금도 점차 개선 가능성
- (물가·부동산)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택시장은 정상화 과정
- (리스크)가계부채, 기업실적 부진·美 금리인상 가능성은 부담

○ 구조적 여건

- (인력)노동·교육 부문 낙후성은 우리 경제도약의 제약요인
- (금융)금융산업의 보신주의 관행 등 비효율성이 여전

<2015년 경제정책 방향>

○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

-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건전성)재정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

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경쟁요소 강화

- (효과성)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高위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 도입으로 민간투자 확대
- (공공기관)모든 기관의 기능·조직을 재설계하고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추진
-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
 - (경쟁촉진)IT·금융융합(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보험·증권사 업무 확대 등 칸막이 완화
 - (외환규제)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 전면개편
 - (모험자본 등)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회 확대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와 여성 경활참가 확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 (노동시장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
 - (생산인력 확충)비자제도 개선·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여성 경활 참가율을 제고
-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

- (산학협력)산업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사례를 확산 하고 전문대 계약학과의 중장년층 ICL확대적용
- (학교교육)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
-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
-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 확충
- 재정을 조기집행(58%)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소득)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 등으로 소득증대 도모,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해외진출과 직업훈련 강화로 청년고용률 제고
- (생활물가)주거·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 R&D혁신,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규제개혁 등으로 **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
- (신성장동력)R&D 지원제도 혁신,융합신제품 신속인증을 통한 조기사업화 등 추진
- (주력산업)경쟁력 제고와 산업별 애로해소를 병행 추진하고 노후산단의 스마트화 추진

- (투자프로그램)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성장·주력산업 혁신 등에 30조원 투자 유도
-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확립, 외국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촉진과 중기·서비스업·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병행
- **민간 임대주택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여 주거안정 도모**
- (규제개혁)공공기관 보유토지 적극활용,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택지·건설 인센티브 제공
- (금융·세제지원)주택기금 금융지원, 임대주택 리츠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
- (수요기반 확충)장기 재무투자자 참여 확대, 소규모 공동 주택·도시형 레지던스 등 공급 주택 다양화
-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 추진**
- (구조개선)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 (연착륙 등)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
-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 유도**

- (한계기업)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하여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 (일반기업)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등 지원
-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비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
-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용
-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 시대 대비
 - (남북경협)역내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
 - (통일준비 역량강화)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
 - (북한주민생활 지원)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2015년 경제정책방향』 (12.22) 보도자료 인용
-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 주요내용(12.2)
 - 2015년 예산안이 12.2.(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1995년 이후 19년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

- 정기일내 예산안 처리(대선이 있었던 '97년, '02년 제외)
-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6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을 증액하여 총 △0.6조원 감소(376.0 → 375.4조원)
 - 재정수지(△33.6 → △33.4조원)와 국가채무(570.1 → 569.9조원)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함
 -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
 -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SOC 투자 등도 확대
 -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임
 -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내 불확실성도 해소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 주요내용』 (12.2) 보도자료 인용

우리농업 60년 동반자 동부팜한농! 풍요로운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부팜한농 첨단비료 시리즈

기능성 무기질비료

- 비린비료, 파란비료 **성장엔(N)**
- 15kg으로 20kg효과 **녹색시대 25**



최첨단 완효성비료

- 비료 위험 발생 도시락 **스파미독상**
- NPK로딩으로 길어진 비료 **스파미독상**



국제규격 관주용비료

- 최고순도 완전용액 **S-Feed**
- 누구나 어디서나 **Eco-sol**



동부팜한농 자재품 : 파워건 / 요스 / 임화칼슘 / 파워플러스 / 파워풍스타 / 반포로OK / 엔케이24 / 칼슘요스 / 뿌리조은

www.dongbularmhannong.co.kr · 고객센터전화 : 1644-0901



□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 확정(12.4)

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원으로 확정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
-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

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보완됨

-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
- 다만, 한중FTA에 대비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 *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농식품부의 '15년 예산의 특징

-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
-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 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쌀관세화, 영연방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

-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ha→50, +151억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5, +535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원) 등을 추진
 -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원), 쌀소비활성화(+5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3.9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원), 농기계임대(+10억원) 등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 영연방FTA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원) 등을 추진

○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원), 배수개선(+21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13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

-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가축방역(+38억원), 축사시설현대화(+1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확대

-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801억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1억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

○ 농식품부는 확정된 ‘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특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원 확정』 (12.4) 보도자료 인용

□ 한·중 FTA 협상“실질적 타결”-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선언(11.10)

○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14.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함
-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음
-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음

○ 한·중 FTA의 의의

-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 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음
-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셋째, 對中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절차

-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금년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임
-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11.10) 보도자료 인용

□ 한·뉴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11.16)

○ 협상타결 경과

- '09.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

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4.11.15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음

- 특히 금년중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
- 9차 협상('14.10.15-17)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하여 11월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하였음

○ 양국간 이익균형 달성

-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는바,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여 협상을 타결
- (워킹홀리데이)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확대(1,800명→3,000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일시고용입국) 총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 확보
- (농축수산물훈련비자)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 확보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총 8주간 시행)
-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

-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함**

·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 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에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

※ 농림축산식품부 『한뉴 FTA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 (11.16) 보도자료 인용

2 국내외 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 품목별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12.30)

○ 2014/15년도 세계 곡물수급은 전년 대비 생산량(0.03%↑)은 증가, 기말재고량 (3.9%↑) 증가 전망(기말재고율 0.6%p↑)

- 최근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며 러시아의 소맥 수출 중단 가능성 및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강보합세 전망

-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구 분	'13/'14 (추정, A)	'14/15(전망) 12월(B)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2472.0	2472.7	0.03
- 쌀	476.9	475.2	△0.3
- 밀	714.8	722.2	1.0
- 옥수수	989.3	991.6	0.2
- 대두	285.3	312.8	9.6

- 세계 주요곡물 기말재고량 추이

(단위 : 백만톤)

구 분	'13/'14 (추정, A)	'14/15(전망) 12월(B)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501.6	521.2	3.9
- 쌀	106.8	99.1	△7.2
- 밀	185.3	194.9	5.2
- 옥수수	172.8	192.2	11.2
- 대두	66.6	89.9	35.0

□ 국제 곡물 가격동향

○ 쌀

- 중립종 : ('12) US\$ 728/톤 → ('13) 683 →('14.12) 1,003
- 장립종 : ('12) US\$ 567/톤 → ('13) 488 →('14.12) 425

- 밀 : ('12) US\$ 287/톤 → ('13) 270
→('14.12) 233
 - 옥수수 : ('12) US\$ 272/톤 → ('13) 225
→('14.12) 151
 - 대두 : ('12) US\$ 537/톤 → ('13) 511
→('14.12) 378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년 12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 (12.30) 자료 인용

3 무기질비료 바로 알기

□ 「하천변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녹비작물 이용기술개발」 (충남대 정덕영 교수, 한경대 이상은 교수, 11.30)

충남대 정덕영교수와 한경대학교 이상은 교수가 공동으로 농촌진흥청 아젠다(11-33) 과제 제종시 부강면 금호리 하천변 농경지에서 실시한 「하천변 농경지의 비점오염원(※비점오염원 : 양식장·농경지배수 등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저감을 위한 녹비작물(※녹비작물 : 토양에 유기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이용기술개발」 2년차 과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 헤어리베치, 호밀, 헤어리베치-호밀 혼파구(50-50)의 녹비작물 환원 연구 결과 헤어리베치-호밀 혼파구가 녹비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각각의 녹비작물 환원 후 토양에 환원 후 기비로 무기질 질소비료와 가축분퇴비 간 양분 가용화율(※양분가용화율 : 양분이 물이나 기타 용매에 녹는 정도)과 입단화율(※입단화율 : 토

양입자가 뭉쳐서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 정도. 토양이 입단화할수록 식물이 잘 생육함)을 조사한 결과 무기질 질소비료 처리구가 가축분퇴비 처리구보다 초기 양분가용화율과 입단화율이 각각 약 11%와 8.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녹비작물 환원 후 무기질질소 처리구가 가축분퇴비 처리구보다 녹비작물분해 속도가 빨라 녹비작물이 가지고 있던 가용양분 함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기질질소의 가용화속도가 빨라져 초기 탄질률(※탄질률 : 유기물 중에 탄소와 질소의 질량비)이 낮아져 녹비작물분해산물에 의한 입단화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동일 포장에서 강우사상(※강우사상 : 비가 오기시작해서 멈출 때까지)에 따른 유거수(※유거수 : 강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흐르는 것) 발생량도 녹비작물환원-무기질비료 시비구가 녹비작물환원-가축분퇴비 처리구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또한 녹비작물분해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분해된 녹비작물이 토양의 물리성, 즉 입단화 증가 및 공극율(※공극율 : 토양의 부피 중 고체 입자 부분을 뺀 것. 수분과 공기로 채워진 정도) 개선에 의한 강우의 지표면 침투력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유거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강우에 따른 유거와 침식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녹비작물환원-무기질질소 시비방식이 녹비작물환원-유기질질소(가축분퇴비 기준) 시비방식보다 농경지에서 비점오염원으로 주변 수계로 유입되는 질소량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추정하였다.

※ 농촌진흥청 아젠다(11-33) 과제 『하천변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녹비작물 이용기술개발-정덕영 교수, 이상은 교수』 (11.30) 자료 인용

□ 신제형·기능성비료 인증 확대 필요-공급체계 변화·농가교육 선행되어야(김문갑 전무이사, 한국농자재신문 12.17)

농촌현실을 감안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신비종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 신제형·기능성 비료의 정부 인증 확대, 그리고 무기질비료 업체의 농가에 대한 비료 적정시비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무기질비료산업은 1970년대에 국내 자급이 달성되었으며, 자급률은 200%를 상회하였고, 약 130~150만톤 정도의 수출여력이 존재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소비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무기질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에서 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소비감소의 원인을 국내에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으로 무기질비료 소비량이 급감되었고, 농업 기반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농지면적 감소 및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를 들 수 있다.

국외로 보면 무기질비료는 100% 원료를 수입하는 외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에 비료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과 최근 들어 인광석 등의 원료를 가지고 있는 중국 원료 공급업체가 기초복비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비료업체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2012년도에는 외국

비료 및 원료생산업체의 비료시장 진출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동남아 시장에서 원료가보다 낮은 저가로 비료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 추진중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 무기질비료업계는 완효성 비료 시장을 확대하는 등 무기질비료 신비종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1987년도에 조선비료(주)(현 조비)가 한국과학기술원과 기술용역으로 국내 최초의 완효성 비료(LCU : Latex Coated Urea)를 개발한 이후, 2010년 완효성 비료시장의 점유율은 5%였던 반면 2013년은 12%를 보이며 4년 사이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비료 사용량을 50%이상 줄이면서 파종과 동시에 1회 시비용 비료인 파종상비료가 개발·판매 중이며, 외국 선진 비료회사에 비해 개발은 늦었으나 이양동시처리 비료를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정부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비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농약비료가 혼합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상 없었던 농약비료혼합제에 대한 시행규칙 신설과 비료관리법상 농약이 함유된 비료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 비료공정규격에 농약비료 혼합제의 경우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고시 개정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비료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비료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신비종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 신제형·기능성 비료의 정부 인증 확대, 그리고

무기질비료 업체의 농가에 대한 비료 적정시비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 기대

첫째,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비종 제품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고효율 비료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은 맞춤형 비료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이나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을 맞춤형비료로 지정하면 새로이 개발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국내 무기질비료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신제형·기능성 비료가 국내에서 효과를 인정받도록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 비료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량비료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014. 10. 7)했다. 정부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연구 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인프라인가 미흡하므로 연구인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무기질비료 업체는 신비종 홍보의 일환으로 적정 비료시비에 대한 농가 교육의 확대를 해야 한다. 무기질비료의 홍보에 있어 구전 효과가 있어 비료업체가 직접적으로 나서도 그 홍보효과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농가에 대한 비료 시비법 교육이나 흙토람을 통한 비료 사용처방서를 홍보한다면 현재 추천시비량에 비해 다소 많은 비료를 시비하여 농가생산비가 증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고효율 비료에

대한 농가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비종 개발이 활성화 되려면, 신제형·기능성 비료가 농가에 많이 보급 되도록 하는 공급 체계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장구조가 되었을 때, 비료 업계는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어 무기질비료 제품의 수출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더 편리하고,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제형·기능성비료 인증확대 필요-공급체계 변화·농가교육 선행되어야』 -김문갑 전무이사 (12.17) 한국농자재신문 기고 인용



4 각 회원사 홍보사항 및 신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칼슘유황비료



작물의 칼슘결핍 예방과 토양 개량, 병해충 예방 및 때깔 제고 등의 효능이 있으며, 물에 녹는 정도가 130배 높아 작물이 쉽게 흡수, 시비 효과가 높음

□ 동부팜한농(주), 성장엔(N)



효과가 빠른 질산태 질소와 꾸준한 효과의 암모니아태 질소를 함유하여 양분을 균형있게 공급하며, 저온기에 특히 효과가 빠르며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경감되어 노지 및 시설 원예작물 모두에 효과가 우수한 원예용 비료

□ (주)조비, 더존



작물 체내흡수와 이동, 효과발현이 빠른 치요다와 2중복비의 결합, 1차 치요다효과(초기생육), 2차 복비효과(중기생육) 발생하여 양분이 균형적으로 흡수되어 생육, 수량, 품질 향상에 효과적임.

□ KG케미칼(주), 흙살로



‘부식산+ 부식질+ 미생물+ 미생물활성제+미량원소’가 최적의 조합으로 제조된 종합토양개량제, 유용미생물의 증가 등으로 뿌리활력과 양분 이용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주)풍농, 썰파원에



유황을 다량함유, 광합성을 향상시켜 작3물생육증대와 황백화현상, 감자의 더덩이병, 양파 저온저장시 부패증, 배추 무름병 등 생리병예방에 효과적임

□ (주)협화, 한번에 OK



웃거름이 필요없고, 측조 시비 가능, 용출기간이 다른 4가지 요소로 벼 생육주기에 맞게 양분을 공급,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흡수비율이 높아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5 협회 활동사항 소개

-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결과보고서 발간
-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10.24)



- 일시 : 2014. 10. 24(금), 09:00~11:30
- 장소 :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
- 주최 : 한국비료협회, 한국토양학회
- 주관 : 한국비료협회
- 협회(회장 강성국)는 무기질비료 적정소비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무기질비료 신비종 개발을 유도하며, 향후에 있을 대북 비료지원 및 통일에 대비한 무기질비료 산업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4일(금)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발표내용 :
 - 제1주제 “무기질비료 신비종 개발 및 수요 확대 방향” (동부팜한농 권오연 부장)

을 통해 100% 수입되는 무기질 비료원료의 가격이 매년 상승되고 있고, 동남아 수출에 있어 국내 비료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무기질비료산업이 발전하고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정부가 힘을 합쳐, 비료업계는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원료 비중을 낮추고 생력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가에 정확한 비료 정보와 시비법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이나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을 맞춤형비료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료 업체의 연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 제2주제 “농산물 생산과 무기질비료 소비량과의 관계” (국립농업과학원 김유학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 재배면적과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통계자료와 농산물의 양분성분 함량자료를 이용해 작물의 가식부(가식부(可食部) : 식품재료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부분)에 필요로 하는 양분량과 작물이 무기질비료로부터 흡수한 양분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질소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고 있고, 인산과 칼리는 가식부의 양분함량을 공급하는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비료의 소비량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은 필요한 양분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비료 사용량 감축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앞으로는 토양 검정을 통해 비료를 적정 시비

하는 과학적인 양분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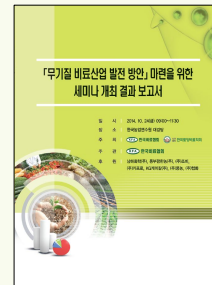
· 제3주제 “통일 대비를 위한 무기질 비료 산업 운영방안” (한국비료협회 김문갑 전 무이사)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1999~2007년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255만 5천t의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대북 비료지원 방식은 과거와 같이 남한에서 생산한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원료 조달, 운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100~130일이 소요되므로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3~5년 정도의 중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일 후 남북한에 필요한 비료 소비량은 245~280만톤이므로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남한에서 생산된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추후 남한에서 비료를 공급받아 북한에 배분하는 것보다 북한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

- 토론자(7명) : 제주대 현해남 교수(좌장), 농림축산식품부 최남근 사무관, 국립농업과학원 이덕배 과장, 농자재신문 이은원 국장, 남해화학 임태균 본부장, 풍농 이동렬

이사, 조비 이흥수 상무이사(※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국장은 서면 의견 제출)

○ 세미나 결과보고서 발간·배포(11.20)

- 총 400부를 발간하여, 376부 배포
- 정부부처 및 국회(72부), 도·시·군 농업기술센터(146부), 농협중앙회, 농협시·도지역본부, 지역농협(69부),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21부), 농업관련 신문사(5부), 회원사(63부)에 배포함



□ 「제6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관련 장관 표창 수상(10.31)



- 일시 : 2014. 10. 31(금), 15:30~18:00
- 장소 :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2층)
- 주최 : 한국화학산업연합회



식량과 비료

한국비료협회(2014년 12월, 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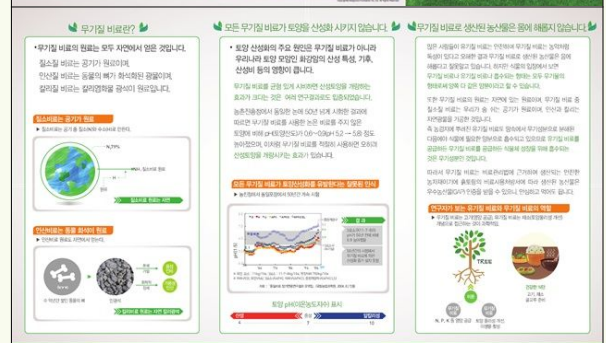
- 주관 : 한국석유화학협회
- 내용 : “제6회 화학산업의 날”을 기념하는 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주)조비 이흥수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 제15회 ‘흙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 참석(11.6)



- 일시 : 2014. 11. 6(목), 09:30~16:00
- 주최 : 농민신문사, 한국토양비료학회, 국회농림어업 및 식생활 발전 포럼
- 주관 : 농협중앙회
- 장소 :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
- 행사내용
 - 흙의 날 기념식 : 흙살리기 유공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등
 - 흙살리기 심포지엄 : 지속가능한 농업과 흙살리기를 주제로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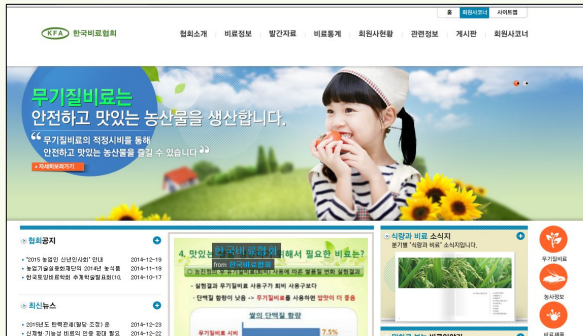
□ “농민교육을 위한 리플렛” 제작배부



- 발행일(부수) : ‘14. 12. 22(4만장)
- 배부일 : ‘14. 12. 30
- 배부처(190곳) :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비자·농민단체, 회원사 등 190곳에 37,010부 배부
- 내용 : 농업인의 무기질비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무기질비료 바로알기’ 리플렛을 제작, 농촌진흥청 농업인 영농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

· 발행인 : 한국비료협회 강성국 회장 · 편집인 : 한국비료협회 김문갑 전무이사(02-552-2811, 12)

□ 협회 홈페이지 일부 개편(12.26)



- 일시 : 2014. 12. 26(금)
- 내용 : 협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이미지 변경, 협회 및 회원사의 지면광고 홍보영상 등을 게시하는 “홍보자료” 게시판 추가 등 협회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

□ 「제6차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 개최 (12.29)



- 일시 : 2014. 12. 29(월), 10:30~13:0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자문위원)
 - 학계 : 제주대 현해남 교수
 - 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최남근 사무관, 국립농업과학원 하상건 연구관

- 국회 : 국회의원 안덕수 의원 박상희 비서관
- 농민·소비자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국장,
- 업계·협회 : 남해화학(주) 임태균 본부장, 동부팜한농(주) 전재현 상무, (주)풍농 이동렬 이사, 협회 김문갑 전무이사

○ 안건

-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안) 및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
- 무기질비료산업 발전 방향 등 현안사항

□ 「비료담당 임원회의」 개최(12.29)



- 일시 : 2014. 12. 29(월), 13:00~14:00
-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비료담당 임원
- 내용
 -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
 - 협회 연말 및 연시 행사 일정
 - 유행의 비료공정규격 변경을 위한 시험의뢰 여부 결정
 - 2014년도 협회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평가 계획(안)

Loving Earth Loving Human
지류자랑·사람사랑

**국내최초의 민간비료회사
푸른생각 푸른기업**

KG 케미칼
kgchem.co.kr

건강한 농촌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비료생산 60년,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KG케미칼이 60년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만을 공급하여
건강한 농촌실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도좌/원예라
중합복합비료

가리/고토 비을을
높인 맞춤비료

시비량 절감
경제적비료

속조시비로 가능
원효성비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 1 A동 603호 고객센터 무료전화 080-024-4300

KG Inics
KG Mobilians
KG ETS
KG Yellowcap
KG ZEROIN
KG Passone
EDAILY

6 경제 지표

□ 경제 관련 지표

○ 국내총생산

- ('12) 2.3%→('13) 3.0→('14 3/4분기) 3.2

※ 한국은행 『201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2.4) 보도자료 인용

○ 소비자 물가지수

- 총지수(전월비)

· ('14.9) $\Delta 0.1\%$ →('14.10) $\Delta 0.3$ →('14.11) $\Delta 0.2$

- 생활물가지수(전월비)

· ('14.9) 변동없음→('14.10) $\Delta 0.5$ →('14.11) $\Delta 0.2$

※ 통계청 『2014년 9월~11월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인용

○ 환율정보 [달러기준 월/일 평균]

- ('14.10) 1,061원/\$→ ('14.11) 1,098→

('14.12.30) 1,098.70

※ 외환은행 『고시환율』 자료 인용

□ 원자재 관련 지표

○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

- 요소(중동)

· ('13.12) 349\$/톤→('14.11) 310

- 암모니아(US Gulf)

· ('13.12) 383\$/톤→('14.11) 630

- 염화칼륨(벵쿠버)

· ('13.12) 310\$/톤→('14.11) 275

※ 『Agrus FMB Price Guide』 자료 인용

○ 원자재 통관실적

- 요소 : ('13.12) 328\$/톤→('14.11) 336

- 암모니아 : ('13.12) 521\$/톤→('14.11) 672

- 염화칼륨 : ('13.12) 434\$/톤→('14.11) 378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자료 인용

www.pungnong.co.kr

**우리농촌, 농업인의 동반자
엔피코가 함께 합니다!**

엔피코 주식회사 **풍 농** 고객상담전화 **080-022-4646**

7 정부 및 각 회원사 동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 2014 친환경비료 우수기관·유공자 선정 심의회 참석(10.20)

- 일시 : 2014. 10. 20(월) 14:00
- 장소 : 농식품부 소회의실(330호)
- 참석대상 : 농진청 재해대응과장, 농과원 토양비료과장, 농협 자재부 비료팀장,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2014 “친환경비료 시상 및 연찬회” 참석 (10.29~30)



- 일시 : 2014. 10. 29(수) ~ 10. 30(목)
- 장소 : 유성호텔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내용 : 친환경비료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등
· 회원사 친환경비료 유공자 표창(협화 김정기 부장 등 3인)

○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 검토회의 참석(11.28)

- 일시 : 2014. 11. 28(금) 14:00~16:00
- 장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의실
- 참석대상 : 농식품부 소비정책과장,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 농과원 농자재 평가과장, 토양비료과장, 식약처 식품기준과장, 농협 비료팀장,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한국작물보호협회 담당부장

○ 농촌진흥청 고시 및 지침개정을 위한 협의회 참석(10.2)

- 일시 : 2014. 10. 2(목)

- 장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세미나실
- 참석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협중앙회 자재부,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한국유기질비료 산업협동조합, 석회석가공협동조합, 한국상토제조협회
- 내용 :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가축분퇴비 및 퇴비 품질등급 평가기준 등에 관한 운영지침개정안

○ 국립농업과학원 이전기념 비전 선포식 개최(12.10)

- 일시 : 2014. 12. 10(수) 09:30~15:00
- 장소 :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본관 3층)
- 내용 : 국립농업과학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계적인 농업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이전선포식을 갖음

□ 동부팜한농(주) 대표이사 선임 및 행사

○ 동부팜한농 박광호 대표이사 선임(10.1)

- 박광호 동부팜한농 영업부문 대표이사가 10월 1일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동부팜한농 대표이사로 선임됨. 동부팜한농은 신임 박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계획이라 밝힘

○ 동부팜한농 “2015년 도약의 해” 선포(10.16)

- 동부팜한농은 2015년을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사업부별 `퀀텀 점프(Quantum J

ump : 대약진) 2015` 출정식을 열었으며, 비료사업부는 16일 강원 속초에서 출정식 행사를 가짐. 박광호 대표는 “과부침주(破釜沈舟 : '술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결사의 각오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말)의 각오로 2015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

○ 토마토 재배기술 세미나 개최(11.20)

- 11월 20일 강원 춘천 신북농협에서 농업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재배기술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는 토마토 품종 선별 방법과 농약·비료의 적정사용법 등 고품질 토마토 재배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중심으로 진행됨

(주)협화
흙은 건강하게 농사는 풍요롭게 -

농업인과 함께한 50년 협화비료
흙을 생각하는 비료

협화는 국내 최초로 규산질 비료를 개발하여 천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맞춤형비료,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유기질비료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종합비료 회사입니다.

협화비료

(주)협화
본행공사 :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문안로5길 37 전화번호 : 02. 737. 2751 팩스번호 : 02. 732. 3625
포항공장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253번길 63 전화번호 : 054. 272. 5072 팩스번호 : 054. 272. 0845
홈페이지 : <http://www.khhc.co.kr> 고객센터 무료전화 : 080.722.8800

8 기타 동향

□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참석(10.15)

- 일정 : 2014. 10. 15(수) 18:00~20:00
- 장소 : 문학의 집
- 주최·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 행사내용: 창립 18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 행사 개최. '2015 함께하는 작은실천 7대 캠페인 실천안'을 발표

□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참석 (10.23~10.24)



- 일시 : 2014. 10. 23(목)~24(금)
- 장소 :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
- 주최·주관 : 한국토양비료학회
- 행사내용
- 장소 : 농협중앙회 2층 중회의실
- 내용 : 20WCSS 개최 결과 보고, 한국토양비료학회 대토론회, 분과별 구두발표, 추계학술발표회

□ “2014년 제2차 한국화학산업연합회 (KOCIC) 운영위원회” 참석(11.14)

- 일정 : 2014. 11. 14(금) 07:00~18:30
- 장소 : 더플라자 호텔
- 주최·주관 : 한국화학산업연합회
- 내용: ‘14년도 ICCA 정기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 알림

□ “제11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참석(11.20)



- 일정 : 2014. 11. 20(목) 14:00~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행사내용: 입찰담합행위 규제, 최근 카르텔 규제 동향과 적발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

□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참석(12.9)

- 일정 : 2014. 12. 9(화) 15:00
- 주최·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장소 : aT센터 5층 그랜드홀
- 행사내용: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



□ "한국토양비료학회 제4차 이사회" 참석(12.18)

- 일정 : 2014. 12. 18(목) 11:30
- 주최·주관 : 한국토양비료학회
- 장소 : 대전 태화장
- 행사내용: 2014년도 사업경과 보고, 2014년도 회계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학회발전 대토론회, 한국비료협회 "무기질 비료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한 논의 등

